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COLOR OF OUR SKY

가제 : 우리 하늘의 색깔

저자 : Amita Trasi

출판사: Bloomhill Books

발행일: 2015년 6월 30일

분량 : 318 페이지

장르 : 소설/ 미스터리



* 체코, 노르웨이, 이탈리아, 포르투갈, 브라질, 스페인 판권 계약 체결

* 커커스 리뷰 선정 **2015** 최우수 인디 도서

1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어느 젊은 여성이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집을 잠시 둘러본 후 곧장 경찰서로 향한다. 미국 로스앤젤리스로 건너간 후에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둔 인도 봄베이 아파트에는 구석구석 가슴을 찢을 듯 튀어나오는 기억 때문이라도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다. 택시를 잡아탄 여자는 경찰서로 들어가 대뜸 형사를 찾는다. 그리고 이 먼 곳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꼭 찾아야만 하는 사람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내민다. 11년 전 집에서 누군가에게 납치당한 언니이자 가장 친한 친구, 목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1986년, 타라가 여덟 살이던 어느 날 아빠가 집에 여자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왔다. 고급스러운 집과 부자들이 모여 사는 주변 동네와 판이하게 다른 저 멀리 가난한 마을에서 왔다는 그 아이는 타라보다 두 살 많은 언니였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선 목타에게 가난도, 고달픔도 전혀 모르고 자란 타라는 금세 찰싹 달라붙어 귀여운 동생이 된다. 타라가 쏟아낸 애정과 허물없는 태도가 목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너무 어린 그때는 알지도 못했다. 사실 목타는 데바다시(devadasi)라는 인도 전통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외할머니 그리고 엄마처럼 사원의 무희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다. 열 살이 되면 그대로 사원에 들어가 춤을 추고 매춘을 강요당하는 끔찍한 삶을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했지만, 딸이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엄마 덕에 끌려가기 직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엄마가 잘 사는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살림살이를 도와주는 아이로 보낸 것이다. 그리하여 타라가 사는 아파트로 오게 되었고, 무희로 살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사랑스러운 여동생까지 생겼다. 그곳에서 목타는 타라를 통해 아이스크

림과 시, 우정을 배우고 둘 사이엔 자매보다 더 깊은 애정이 생겨났다.

하지만 목타가 양녀로 타라네 가족이 된 지도 7년이 지난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지고 만다. 정황상 납치가 분명하지만 행방을 찾을 수가 없다. 타라의 아빠는 실종신고를 하고 목타를 찾으려고 애쓰지만 이내 미국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목타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해 타라와 아빠는 미국으로 향한다. 로스앤젤리스에 정착한 타라는 11년 동안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학업에 열중했지만 마음 한 켠에는 늘 목타가 자리했다. 자신의 잘못으로 목타가 납치당했다는 죄책감은 늘 타라의 모든 감정에 가장 밑바탕이 되어 도저히 그대로는 살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타라는 아빠가 쉬이 포기해버린 일, 목타를 찾아내는 일을 직접 하기로 결심하고 머나먼 고향 땅, 인도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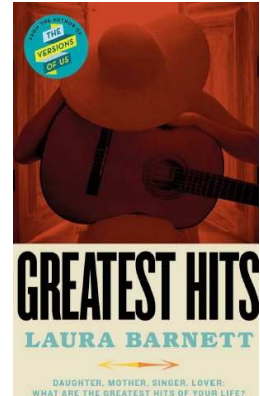
이야기는 2004년에 인도 땅을 다시 밟은 타라의 시선과 1986년 타라의 식구가 된 목타의 시선이 번갈아 가며 이어지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서히 한 곳으로 향한다. 무성의한 경찰들의 태도에 실망하면서도 목타를 찾으겠다는 일념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한 타라는 파헤칠수록 소스라치게 놀랄 사실들을 발견한다. 인신매매가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잔혹한 세계의 이면, 그리고 왜 애당초 목타가 하필 타라의 집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뼈아픈 아픔이 담긴 가족의 비밀이 타라의 눈 앞에 드러난다.

전통적인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인도 마을과 인도의 대도시 뭉바이, 그리고 미국을 오가며 빈곤, 여성의 인권 등 현대 인도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인 문제를 냉철하게 전하고 동시에 사랑과 배신, 용서,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우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아미타 트라시(Amita Trasi)는 인도 뭉바이에서 나고 자랐다. MBA 졸업 후 7년간 다양한 국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미국 휴스턴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GREATEST HITS
가제 : 베스트 앨범
저자 : Laura Barnett
출판사: Weidenfeld & Nicolson
발행일: 2017년 6월 15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소설/ 현대소설



-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판권 계약 체결
- * “베스트셀러에 오른 데뷔소설 『The Versions of Us』를 뒤를 이을 만한 이야기” - BBC 뉴스
- * “2017년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폴라 호킨스와 로라 바넷, 두 베스트셀러 작가의 두 번째 소설로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이다.” - **STYLIST.CO.UK**

오래간만에 아침 일찍 침대에서 벗어난 카스 휠러는 천천히 아침식사를 마치고 친구와 남편이 남긴 응원의 메시지를 마음 깊이 간직한 채 스튜디오로 향했다. 카스가 도착한 스튜디오는 좋은 동료인 알란의 소개로 알게 된 프로듀서 칼럼의 작업실이었다. 서른여덟의 나이에 벌써 그래미 상을 세 번이나 수상하고 음악가협회가 주는 ‘올해의 프로듀서’ 상까지 받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답지 않게 빠가지 않고 진솔한 태도가 카스는 펍 마음에 들었다. 그를 소개 받은 건 카스의 음악 인생을 총 정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릴 앨범, 수십 년 동안 카스가 만든 수많은 음악 가운데 최고의 음악을 선별하여 새롭게 발표할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다.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던 시대, 손으로 직접 쓴 편지와 짧은 전보, 장거리 전화, 꼭 듣고 싶은 가수의 LP 음반을 구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레코드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서던 ‘아날로그’ 시대를 풍미했던 싱어송라이터 카스 휠러가 이제 잠들어 있던 긴 세월을 넘어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시작한 것이다.

70년대 초 영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가상의 음악가 겸 가수 카스 휠러를 주인공으로 한 이 소설은 어느 날 갑자기 음악계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후 30년 동안 조용히 지내던 그녀가 새로운 컴필레이션 음반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만히 따라간다. 소설의 첫 장면에서 침대에 계속 누워있고 싶은 마음을 겨우 다잡으며 일어서는 카스는 꼭 그런 심정으로 일상에서 과감히 벗어나 너무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던 음악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 애쓴다. 이야기는 단 하룻동안 카스가 스튜디오 안에 앉아 테이블 위에 가득 쌓인 자신의 앨범을 하나하나 들으며 최고의 음악을 고르는 과정을 시간대별로 들려준다. 노래 한 곡마다 가사와 노래가 발표된 시기가 소개되고, 1950년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카스의 인생이 그 노래들과 함께 소개된다. 모든 음악을 그녀 자신이 만들었기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각각의 노래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밑거름이 된 삶의 사건들, 사연들이 소개되면서 스타 중에 스타였던 그녀가 왜 그토록 불현듯 모든 인기를 버리고 숨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비밀이 하나 둘 드러난다.

선망의 대상, 우상처럼 떠 받들던 연예인을 향한 팬들의 과도한 애정과 집착이 만들어낸 헛

소문과 모함이 카스를 궁지로 몰아 넣은 이야기부터 10년 전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린 가슴 아픈 사건까지, 그녀가 듣는 음악이 불러 일으킨 기억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담담하게 전해지지만 그 내용은 눈물과 감동, 고통, 열정과 같은 온갖 감정을 자아낸다. 줄줄이 연결된 사슬처럼 꼬집어내는 기억과 베스트 앨범에 들어갈 열여섯 곡의 노래마다 오롯이 담긴 지난 시간은 카스로 하여금 순수했던 옛 시절의 모습과 오직 음악 하나만 생각하며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했던 그때의 에너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거쳐 재능 있는 신인 아티스트로 음악계에 등장했던 시절, 그리고 전 세계적인 스타 자리에 올라 겪은 일들, 이어진 결혼과 출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까지 카스 휠러가 지나온 모든 인생에는 늘 음악이 따라다녔다. 가상의 가수이고 노래지만 책을 읽는 독자도 카스처럼 그 음악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할 정도로 각각의 노래는 큰 울림을 남긴다. 70년대 영국의 대중음악계는 60년대에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여파가 남아 무엇이든 불가능한 건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 시절, 카스는 음악으로 자신이 꿈꾸던 인생이 펼쳐지리라 기대했지만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뒤, 인기와 대중의 환호는 속이 텅 빈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감한다. 이어지는 개인적인 불행과 엄마로서의 삶은 철저한 비즈니스 세계인 음악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에 걸림돌이 될 뿐임을 느껴야 했던 괴로움, 사랑하는 딸아이에게 찾아온 질병, 모두 카스의 타오르던 음악적 창의력을 재로 만들어버렸지만 긴 세월이 지난 후에는 다시 그 재능에 불씨를 일으키는 탄탄한 목재로 바뀐다.

흠도 많고 상처도 많은 주인공이 다시 구원 받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결코 낯설지 않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 한때 오만과 열정, 순수함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거의 다 잊혀진 그 시절을 돌아보며 누구나 저지르는 인생의 실수를 스스로 꺼안고 평화롭게 살기 위한 노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로라 바넷(Laura Barnett)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를 전공한 뒤 런던 시티 유니버시티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다. 「가디언」, 「옵저버」, 「데일리 텔레그래프」 등 영국의 여러 일간지와 잡지에 기사와 평론을 기고하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해 왔다. 2015년에 발표한 데뷔소설 『The Versions of Us』는 23개 언어로 번역되고 트레이드마크 필름(Trademark Films)에 TV 프로그램 옵션이 판매되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제목 : OF SOUND MIND

가제 : 소리

저자 : James Waltzer

출판사: Medallion Press

발행일: 2016년 4월 12일

분량 : 456 페이지

장르 : 소설/ 심리스릴러



- * “자신이 멀쩡하다는 사실을 소설 속 경찰과 독자에게 모두 증명해 보여야 하는 주인공이 들려주는 배신과 살인의 이야기” – 「*Disgraced*」의 작가 그웬 플로리오
- * “미스터리 소설에 익숙한 사람에게도 놀라움을 주는 소설. 선명하게 그려진 등장인물이 흥미를 자아낸다.” – 「*Delco Culture Vultures*」 매거진

평생 떠나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부모님 집을 떠나 혼자 살기 시작한지 6주째인 리처드는 매일, 맨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리처드의 귀에 날카롭게 와서 꽃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청력, 가히 초능력이 라 할 만큼 우수한 청력은 리처드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저주가 되고 말았다. 혼란스러운 정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요양 시설에서 6개월을 보낸 후, 겨우 보통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 나온 리처드는 런던 한복판에 우뚝 솟은 고층 아파트에 집을 마련하고 일상을 유지하려 애쓰는 중이다. 하나뿐인 재능 혹은 저주 덕분에 청력검사 전문가가 된 그는 남들처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며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길을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저 멀리서 떠드는 소리부터 새벽 3시마다 근처 편의점에 물류 트럭이 도착하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판이니 그리 쉽지는 않다. 무엇보다 리처드의 정신을 맨 처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어린 날의 사건, 뇌리에 깊이 새겨진 그 끔찍한 사건이 리처드의 기억 저 밑에서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그런데 새 삶을 시작한 아파트에서, 리처드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와락 되살린 사건과 마주한다. 수십 년 전의 그 순간과 너무도 닮은 소리, 너무 비슷한 사건이 리처드의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어느 때와 같이 혼자 저녁 식사를 마친 후 42층 아파트 꼭대기에 마련된 헬스클럽으로 향한 리처드는 운동을 끝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의 집은 22층 일곱 번째 집이지만 실수로 23층에 내린 그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습관처럼 자신의 집 대문이 있는 쪽으로 걸어간다. 2307이라는 숫자를 보고서야 잘못 왔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가려던 찰나, 리처드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여자가 목이 졸리는 소리, 분명 안에서 누군가가 여자의 목을 졸라 죽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어릴 적, 똑같은 소리를 듣고 그 악몽 속에 평생을 살아온 그였기에 처음에는 자기 머릿속에서 만든 환청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그 소리는 분명 2307호 대문 안에서 새어 나오고 있었다.

리처드는 아파트 관리인과 경찰을 불러 자신이 들은 소리를 그대로 전하지만, 누구도 그의 말

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 이 아파트에 산 지 6주밖에 안 됐지만 그간 리처드가 예민한 청력 때문에 보인 괴상한 행동으로 이미 이상한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은데다 정신병원에 있다가 나왔다는 사실이 더해져 리처드가 하는 말은 다 미치광이가 지껄이는 헛소리로 치부됐다. 게다가 2307호에 사는 사람은 유능한 의사로 소문이 자자한 데이비스 브라운 박사였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답답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기에, 리처드는 브라운 박사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엘레노어 카슨이라는 젊은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그 날 목이 졸린 여자가 그녀라는 확신을 갖게 된 리처드는 아내를 암으로 잃고 사랑하는 딸마저 교통사고로 잃은 뒤 망연자실한 상태로 삶을 이어가던 올리버 경관이 리처드를 비롯해 자신을 믿고 이 사건의 실마리를 함께 풀어갈 사람들을 천천히 모으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을 평생 따라다닌 과거의 악몽과 반드시 마주해야만 한다. <도청>이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된 프랜시스 코폴라의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The Conversation』을 떠올리게 하는 치밀한 줄거리와 잘 짜인 구성, 비상한 청력과 더불어 폐쇄공포증과 편집증에 시달리는 불안정한 주인공과 무기력한 주변 인물들로 인해 자연스레 형성되는 긴장감이 돋보이고 리처드의 옛 악몽과 뒤엉키며 천천히 드러나는 사건의 진상은 예상치 못한 충격을 안겨준다.

<저자 소개>

제임스 왈처(James Waltzer)는 학교 교사, 기업 인사관리 담당자로 일하다가 1988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발행되는 잡지에 700편이 넘는 글을 기고하고 소설, 비소설 등 여섯 권의 책을 발표했다.

제목 : SWEETPEA

가제 : 스위트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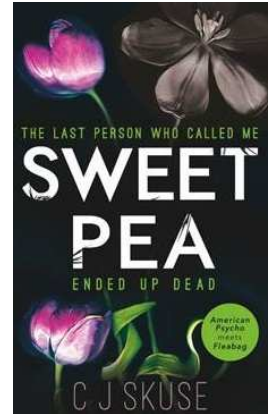
저자 : C.J. Skuse

출판사: HQ

발행일: 2017년 4월 20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소설/ 스릴러



* 속편 「**SWEETPEA: IN BLOOM**」과 함께 프랑스 판권 계약 체결

* 「텔레그래프」 선정 **2015** 최우수 **YA** 소설 「**Monster**」 작가가 완성한 첫 번째 성인 소설, <브리짓 존스의 일기>와 <덱스터>가 결합된 듯한 독특한 스릴러

다 큰 성인이 직업도 없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들도 없고 미혼인 경우 애인이 없는 채로 오랫동안 살면 사람들은 이내 수군대기 시작한다. ‘사회 부적응자’, ‘어딘가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고, 할 일 없고 호기심이 지나치게 강한 부류는 이상한 낚시가 없는지 살피기까지 한다. 리아논이 바람 피는 남자친구도 모른 척 곁에 두고, 공통점이라곤 하나도 없는 소란스러운 친구들과 꾸준히 만나고, 당장 때려 치고 싶은 잡지사 편집보조 일을 하러 매일 출근길에 오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덕분에 사람들은 리아논이 그저 평범한 스물일곱 젊은 아가씨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 리아논의 정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미혼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솔직하고 귀여운 여자, 브리짓 존스가 다시 등장한 듯한 주인공 리아논은 겉보기엔 그저 연애하고 돈 벌고 쇼핑하면서 사는 사람 같지만, 그 뒤편 덱스터가 숨어 있다. 차이가 있다면, 리아논은 매일, 매 시간 들끓는 살인 본능을 정교하게 구축한 사회생활의 포장지로 잘 가리고 매일 일기장에 ‘죽일 놈들’ 리스트를 쓰는 것으로 대체로 만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들과 손을 봐주지 않고서는 건딜 수 없는 괴물들은 리아논을 가만 두지 않는다. 결국 리아논은 모두가 잠든 밤 시간을 노려, 정신 못 차리고 겁 없이 돌아다니는 소아 성애자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못된 놈들을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며 혼을 내주는 정의의 사도로 활약하기 시작한다. YA 소설로 이미 명성이 높은 작가가 처음으로 완성한 코믹 스릴러는 눈물 썩 빼도록 웃긴 주인공의 이야기가 첫 장부터 독자를 잡아 끌고 리아논의 희한한 살인 욕구가 처음 들끓기 시작한 어린 시절의 웃지 못할 사건은 뜻밖의 긴장감을 선사한다.

공원에서 불쌍한 개를 발로 걷어찬 남자애와 옆에 있던 여자애, 도심 고층건물 현관에 죽치고 앉아서 우주가 어쩌고 신이 어쩌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뚜렛 증후군 환자, 아침마다 출근길에 똑같은 거리에 나타나는 파란색 닷산 퀘시카이 운전자, 그리고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서로 눈이 맞아 음란 문자가 한창 오가고 있는 남자친구와 라나. 리아논이 매일 밤 작성하는 ‘죽일 놈들’ 리스트는 아주 세심하게 고르고 고르려 해도 늘 이렇듯 여러 사람들로 넘쳐난다. 흥겨

운 파티와 출근 안 해도 되는 날들이 이어져 사뭇 유쾌하게 보낸 연말에도 그냥 살려둘 수 없는 놈들이 매일 등장하고, 새해 첫날도 이변은 없었다. 슈퍼마켓에서 번번히 사과를 봉지에 집어 던지듯 넣는 바람에 멍이 들게 하는 계산원, 이웃집에 사는 상습 절도범 휘테커 씨 등등 리스트에 오를 후보들이 리아논의 눈 앞에 자꾸 나타난다.

착하게 굴기로 작정하면 세상 누구보다 착하고 여린 아가씨로 변신하는 리아논은 자신을 ‘스위트피’라고 다정하게 불렀던 사람이 결국 시체가 된 후, 3년째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고 독자들에게(일기장에) 고백한다. 하도 오래 본능을 눌러온 바람에 이제는 다시 ‘일’을 시작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입에 댔을 때 느낄 법한 죄책감이 들 것이 분명하리라 생각한다. 사실 리아논은 어릴 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엄청난 범죄에서 살아남아 한때 길에서 누구나 알아보는 유명 인사였다. 하지만 리아논에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욕구가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건 아무도 알지 못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자신이 철저히 만들고 유지해온 사회적인 껍데기가 그녀를 ‘그저 평범한 아가씨’로 만들었지만 세상은 꼭 눌러온 리아논의 무서운 본능을 자꾸 건드린다. 마침내 리아논은 미뤄온 복수를 감행한다. 그 결과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리란 예상과 달리 너무 개운하다! 정말 오래간만에 숙면을 취한 느낌, 그 어느 때보다 몸이 가뿐하고 건강해진 기분, 뿌옇게 흐려졌던 머릿속이 맑게 개이는 기분까지 든다. 이제 모두가 조금은 무시했던 평범한 아가씨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볼까 고민하기 시작한다.

리아논이 쓰는 1년치 일기장 형식으로 이루어진 소설은 가장 절실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사는 게 늘 지루하던 주인공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고충과 서서히 드러내는 본색을 코믹하게 그려낸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리아논이 택한 위험한 ‘일탈’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저자 소개>

C.J. 스쿠스(C.J. Skuse)는 영국 바스 스파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공부하고 동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Pretty Bad Things』, 『Rockoholic』, 『Dead Romantic』, 『Monster』, 『The Deviants』 등 YA 소설로 이름을 알렸다. 위 소설은 처음으로 완성한 성인 소설이다.

I'm really pleased to share the news that combined paperback (TCM) and e- book sales for Katie Marsh's MY EVERYTHING and A LIFE WITHOUT YOU have reached over 100,000

So it seems like a good time to mention that A LIFE WITHOUT YOU has been in the Kindle Top 100 for SEVEN months

Katie is one of ONLY TWO women's fiction authors to have stayed consistently in the Top 100 over that period

MY EVERYTHING was a #1 Kindle bestseller

We've sold translation rights in 9 territories and counting!

제목 : A LIFE WITHOUT YOU

가제 : 네가 없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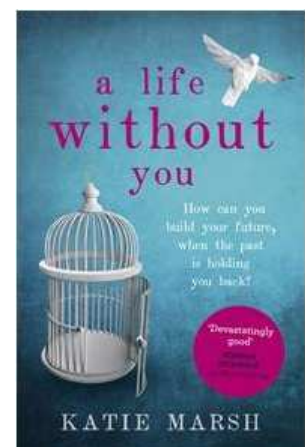
저자 : Katie Marsh

출판사: Hodder & Stoughton

발행일: 2016년 7월 14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소설



설레고 긴장되는 결혼식을 몇 시간 앞두고 울린 전화, 몇 년째 연락도 없던 엄마의 구조 요청

하늘이 정해준 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제이미와 드디어 부부가 되는 날, 조는 아침부터 속이 불편했다. 머리도 어지럽고, 쿵쿵대는 심장은 도무지 진정되지 않았다. 결혼식 날 모든 신부가 그러겠거니 생각했지만 자꾸만 올라오는 헛구역질 때문에 문턱이 닳도록 욕실을 드나드는 조를 보고 있자니 아버지도, 여동생 릴리도 속이 바짝바짝 탈 지경이었다. 너무 긴장한 탓일까? 릴리의 말처럼 끝내 엄마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은 죄책감이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걸까?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조는 자신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잘 알고 있었다. 불과 몇 십분 후면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질 그 시점에, 이토록 아름답게 장식된 호텔에서 제이미와 결혼하기로 한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나 계속 의구심이 들었다. 자신이 그에게 어울리는 짝이 맞는지, 제이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신경을 건드렸다. 그런 속도 모르는 제이미는 신부 대기실 문 앞까지 찾아와 또 다시 사랑을 고백했고, 조는 그의 절절한 고백을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조금 뒤 울리기 시작한 릴리의 전화벨 소리가 그와의 대화를 끊어버린 것이 반가울 정도였다. 그런데 조가 힐끗 보니 동생의 전화기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맥 아줌마였다. 조가 벌써 몇 년째 연락도 하지 않고 얼굴도 안 보고 지내는 엄마와 가장 친한 친구. 릴리는 나중에 통화하면 된다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조는 그냥 받으라고 직접 통화 버튼까지 눌러줬다. 그때만 해도 그 통화가 조의 그 날 하루를, 그리고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은 조도 릴리도 전혀 생각지 못했다.

조는 열여섯 살 때 집을 떠나버린 엄마를 용서하지 못했다. 릴리는 그래도 결혼식에 초대는 해야 하지 않냐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지만 조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릴리에게 전화를 건 맥 아줌마는 지금 당장 조가 와야 한다고, 엄마가 경찰서에 잡혀 있으니 와서 좀 도와줘야 한다고 다짜고짜 고향을 쳤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냥 무시하고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조는 돌연 엄마가 있는 곳에 가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끌림이, 마음 속에서 강하게 일어난 그 감정을 조 자신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아침부터 머릿속을 짓누르던 고민들, 결혼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과 오늘따라 유난히 떠오르던 어린 시절의 엄마 생각이 겹쳐지면서 맥 아줌마의 전화가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결국 조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호텔을 빠져 나와 얼른 택시에 올라탔다. 그리고 곧장 엄마가 붙잡혀 있다는 경찰서로 향했다.

어둡고 무거운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서하고, 용서 받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가는 관계들

런던 시내를 빠져나간 택시는 한참을 달려 낮선 동네에 도착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택시에서 내리는 조를 보고 맥 아줌마는 기겁을 하며 달려왔다. 조 역시 아줌마가 어릴 때 본 모습과 너무 달라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소파나 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한 손에 와인 잔을 들고 항상 침착한 말투로 이야기하던 아줌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껌을 잘근잘근 씹어대며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놀라기에는 일렀다. 조에게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 마주한 엄마는, 조의 기억에 남아 있는 모습이나 꿈속에서 만났던 예전의 엄마 모습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모습도, 그리고 정신 상태도 모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엄마. 맥 아줌마는 엄마가 병으로 아주 천천히 기억을 잃어가는 중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대체 그 동안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사연을 알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과거의 상처를, 자신만 두고 혼자 도망쳐버린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조는 엄마를 그토록 비난하며 살아온 자신도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제이미를 결혼식장에 남겨두고 도망쳐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용서하기 위해, 그리고 용서 받기 위한 조의 한 걸음 한 걸음에는 큰 감동과 함께 무거운 과거를 딛고 새롭게 열어가는 미래의 희망이 담겨 있다.

<저자 소개>

케이티 마쉬(Katie Marsh)는 의료 분야에서 일하며 영국 전역의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의 용기와 놀라운 사연에서 영감을 얻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데뷔소설 『MY EVERYTHING』은 「이브닝 스탠다드(Evening Standard)」로부터 ‘2015년 가장 주목할 만한 여름 데뷔소설’로 선정됐다.

NON- FICTION

제목 : THE UNNATURAL WORLD

가제 : 이상한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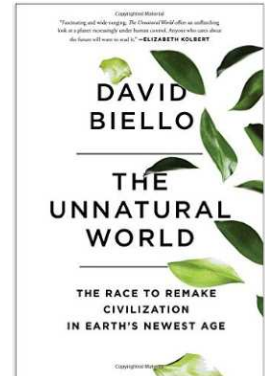
저자 : David Biello

출판사: Scribner

발행일: 2016년 11월 15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과학/환경



- * “인간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인간세)라는 전제로, 전 세계를 돌며 인류의 생활과 생존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여행기” - 「뉴욕타임스 북 리뷰」
- * “지구의 비참한 미래와 멸망을 예고하는 무수한 매체의 이야기를 희망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흡입력 있는 성과” - 「북리스트」
- * “인류의 미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책”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Sixth Extinction*」의 저자 엘리자베스 콜버트

인류 문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행성, 규모를 다 알 수도 없을 만큼 방대한 우주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지구에 다름아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위기가 큰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은 지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꾸고 돌보는’ 일이었고 그 일을 잘 해낼 때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 생태계 파괴와 같은 인류의 악영향이 온 지구에 확산된 이 시대에는 지질학적인 연대의 하나로 ‘인간세’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다.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인간세에 발생한 대대적인 결과와 해결책을 그 동안 무수히 모색해 왔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편집자이자 오랫동안 과학 저술가로 활동해온 저자도 그 흐름에 동참하여, 지금 당장 인간이 당연한 듯 만들어온 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허물어지는 지구와 함께 인류도 허물어질 것이라 이야기한다. 현재의 위기도, 앞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방안도 모두 인간에게 있다는 확신으로 저자는 지구와 인류 모두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이 책에서 찾아본다.

보이지 않지만 대기를 가득 메운 이산화탄소를 쭉 빨아들이는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더욱 번성할 수 있도록 망망대해에 영양을 공급하는 과학자, 버려진 폐기물이 귀중한 자산이 되는 ‘순환경제’ 모델이 자리를 잡도록 하기 애쓰는 중국 정부의 노력, 이미 멸종되어버린 생물을 되돌리려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저자는 인간과 모든 생명체를 구해낼 방안을 연구해온 전 세계 과학자들과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소개한다.

인간이 지구와 환경에 저지른 만행을 지나치게 꾸짖기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한 저자의 방식은 절망적인 미래를 확인하는 이야기들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전 세계에서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성과를 살펴보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역할, 즉 지구를 건강하게 가꾸는 ‘정원사’의 기능을 잘 해낼 수 있는 길을 안내한다. 인간이 발휘하는 영향력이 재앙을 일으키는 대신 파국을 이겨낼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반전을 모색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가득하다.

<목차>

요약

1부. 지구의 변화

1장. 철권통치

2장. 돌에 새겨진 말

2부. 미지의 땅

3장. 기초작업

4장. 거대한 죽음

5장. 인간의 시대

3부. 더 나은 인간세를 위해

6장. 시민

7장. 기나긴 해빙기

8장. 최종 개척지

<저자 소개>

데이비드 비엘로(David Biello)는 수상 경력이 있는 저널리스트로 1999년부터 환경과 에너지에 관한 보도를 이어왔다. 2005년부터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글을 기고하다가 현재는 편집자를 맡고 있다. 「Los Angeles Review of Books」, 「Yale e360」, 「Nautilus」, 「Aeon」 등에도 글을 실고 있으며 여러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듀폰-콜럼비아 상(duPont- Columbia award)을 수상한 PBS 다큐멘터리 ‘Beyond the Light Switch’의 사회자이기도 하다.

제목 : INCENDIARY

가제 : 폭파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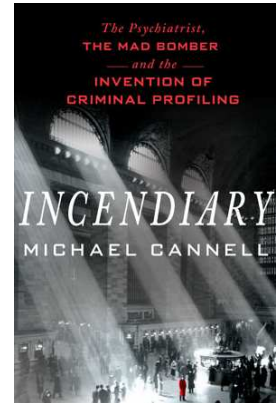
저자 : Michael Cannell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7년 4월 25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사회과학(범죄학)



* “저자는 자신이 밝힌 사실에 예술가적 열정과 감동을 멋지게 불어 넣었다.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책” – 베스트셀러 『House of Cards』의 저자 윌리엄 D. 코헨

* “압도적이고, 현 시대에 큰 울림을 주는 중요한 책이다.” – 에드가 상 3회 수상자, 베스트셀러 『The Hour of Peril』의 저자 대니얼 스타사워

테러리즘이 지금은 미국의 대표적인 문제가 되었지만 그런 인식이 자리잡기도 전에 도시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한 테러범이 있었다. 1950년대, 뉴욕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 방화범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무려 2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그는 그랜드 센트럴, 펜 스테이션, 라디오 시티 뮤직 홀까지, 뉴욕의 어느 곳도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다. “FP”라고 서명하는 이 정체 모를 범인은 공중전화 부스며 사물함, 심지어 영화관 좌석 아래까지 자신이 직접 만든 폭탄을 은밀히 집어 넣고 홀연히 사라졌다.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수사법도 확립되지 않았던 시절, 이 유래 없는 범죄에 찢찢매던 뉴욕 경찰은 범죄자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정신의학 전문가 제임스 브뤼셀 박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현재 우리가 ‘범죄 프로파일링’으로 알고 있는 수사기법은 바로 이 사건에서 시작됐다. 브뤼셀 박사의 분석과 평가는 범죄수사에 혁신을 일으킨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냈다. 저자는 ‘미친 폭파범’이라 불리던 테러범과 그를 잡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경찰, 정신분석 전문가의 추격전을 이 책에 담았다. 범인의 상상을 초월한 행각과 그가 남긴 사소한 단서를 하나하나 종합하여 형체도 없던 범인의 윤곽을 서서히 파악해나가는 과정은 한 편의 스릴러 영화처럼 짜릿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뉴욕 시에 나타난 사상 최악의 악한”이라 칭한 폭탄 테러범은 자신의 집에서 서른 개가 넘는 폭탄을 만들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잔혹한 사건은 두 차례나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세계대전이었지만, 적어도 전쟁은 형체가 있고 예측도 가능했다. 그러나 폭파범은 그 범위를 벗어났다. 도시의 그림자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범인은 마치 사회의 가장 큰 혼란과 불안, 고통이 응축된 결집체와도 같았다.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누구나 느낄 법한 스트레스가 그에게는 걸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다. 편집증, 정신분열증이 더해진 그의 시커먼 정신 세계에는 논리도, 순서도 없었다. 늘 범죄로 들끓는 뉴욕에서 온갖 흉악한 인간들을 상대해온 뉴욕 경찰이지만 그 광기 어린 범죄자가 저지르는 엄청난 범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무수히 단련시킨 탄탄한 근육과 날센 발걸음은 연쇄 방화범을 잡는 일에

는 무용지물이었니 AP 통신은 “뉴욕의 역사상 경찰을 이토록 괴롭게 한 사건은 없었다.”고 보도할 정도였다. 과학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과 생각을 바꿔놓던 시절, 이 시기에 등장한 범인은 이 변화의 시대에 맞게 경찰과 손을 잡은 정신분석 전문가의 치밀한 노력 끝에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책은 그 모든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전하는 기록이자, 테러가 수시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 넣는 현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핵심이 무엇인지 되새기게 하는 역사서다.

<목차>

머리말

1부. 범인 추적

1. 정의의 수호자
2. 폭발물 처리반
3. 미스터 싱크.
4. 정신의학의 역전
5. 포플러 스트리트
6. 거리 위에서부터
7. 정점
8. “버튼은 누르게 되어 있어” (이하 생략, 13장까지 구성)

2부. 광기의 법칙

14. 심문
15. 미소 짓는 복수자
16. 미스터 데스
17. 마테완(Matteawan)

<저자 소개>

마이클 칸넬(Michael Cannell)은 뉴욕타임스 ‘주택 & 가정’ 섹션의 편집자로 7년간 근무했다. 이후 「뉴요커」, 「뉴욕타임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등 여러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왔다. 저서로는 『The Limit: Life and Death on the 1961 Grand Prix Circuit』, 『I.M. Pei: Mandarin of Modernism』 등이 있다.

제목 : THE SEVEN DEADLY SINS OF PSYCHOLOGY

가제 : 심리학의 7대 죄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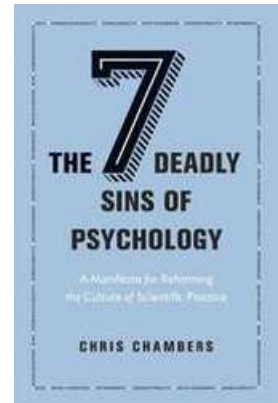
저자 : Chris Chambers

출판사: Princeton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7년 5월 2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심리학



- * “저자는 역사적 사실과 여러 방법론에 관한 분석을 제시하며 심리학자들이 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알려준다.” - 열린과학연구소, 브라이언 노석
- * “재현이 불가능한 연구를 반복하느라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를 제기한 책.” - 옥스포드 대학교, 도로시 비숍

제목만으로 우리의 관심을 잡아 끄는 연구결과가 신문 헤드라인에 수시로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심리나 정신 상태를 분석한 내용은 특히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킨다. 이와 함께 학술지에 실린 연구결과라고 해서 다 믿어서도 안 되고 언론이 독자를 모으기 위해 자극적으로 갖다 붙인 제목과 기사 내용은 부풀려진 경우가 많다는 우려도 심심찮게 제기된다. 과연 이러한 연구결과는 크게 우려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줄까? 심리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지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이어온 저자는 그 영향이 생각 외로 엄청나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과학이 왜곡된 결과를 내놓는 모순된 상황에 이른 원인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고 이 ‘7대 죄악’의 면면을 이 책에서 과감하게 고발한다.

영국에서는 ‘연구 우수성 프레임워크’라는 기관이 각 분야의 연구결과가 발생시킨 사회경제적 영향을 측정한다. 그 결과는 연구비 분배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2014년에 해당 기관이 내놓은 450건 이상의 “영향력 있는 사례 연구”만 보아도 저자가 이야기하는 심리학의 막대한 힘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의 설계와 수용, 시험 불안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인간의 기억력 한계를 고려한 경찰의 심문 기술 개선 방안부터 도심 차량의 속도제한 기준, 우주 탐사에서 인적 요소의 기능,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민이 느끼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전략, 담배 포장 방식에 이르기까지 심리학이 스며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심리학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부터 실용적인 부문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대중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파악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자가 이야기하는 7대 죄악은 심리학이나 관련 학문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문제는 이처럼 중대한 역할을 하는 과학이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집’처럼 변해버렸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15년 이상 과학계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과학, 특히 심리학의 명성을 값아 먹는 무수한 요인을 체감하고, 목격했다고 고백한다. 이에 과학자의 본분을 잊고 과

학계를, 더 나아가 과학이 좌우하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어떻게 해야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한다. 과학적인 연구의 근본이 되는 원칙, 연구 과정에서 수집하고 획득한 데이터의 올바른 처리 방법, 야망과 탐욕이 만든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오직 논문의 ‘건수’만 높이기 위해 비양심적으로 낭비되는 자원을 보존하는 방법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을 통해 과학과 과학자의 가치를 다시 높이는 방법이 폭넓게 소개된다.

실제로 벌어진 일로 받아들이기엔 처참하고 괴로운 과학의 죄악을 용감하게 마주하고, 숨김 없이 투명한 과학으로 이 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목차>

서문

- 1장. 편향의 죄
- 2장. 유연성을 은폐하는 죄
- 3장. 불확실성의 죄
- 4장. 데이터를 쓸어 모으는 죄
- 5장. 부패의 죄
- 6장. 억류의 죄
- 7장. 통계의 죄
- 8장. 구원의 길

<저자 소개>

크리스 챔버스(Chris Chambers)는 카디프 대학교 심리학부의 인지 신경과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가디언」 ‘과학’ 부문 블로그 기고자로도 활동 중이다.

제목: THE UNSETTLERS

가제: 도시를 떠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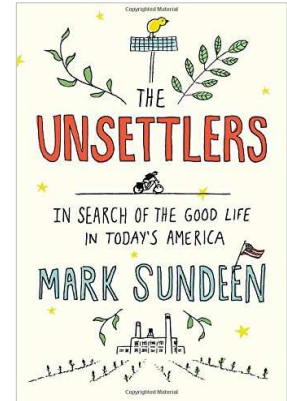
저자: Mark Sundeen

출판사: Riverhead Books

발행일: 2017년 1월 10일

분량: 336 페이지

장르: 회고록



*** 일본 판권 계약 체결**

*** “정치 상황 때문에 트위터나 뉴스에서 벗어나 쉬고 싶은 사람들에게 꼭 맞는 책.” - 「뉴욕 타임스 북 리뷰」, ‘미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세 권의 책’ 중 하나로 선정**

***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띤 호기심과 연민으로 전하고 깨우침을 준다.” - 「파리 리뷰」**

뼈를 에는 듯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해양 생물학자인 남편과 뱃속에 그의 2세가 자라고 있는 오페라 가수인 아내는 미주리 주 라 플라타에 도착한 열차에서 내렸다. 자전거 두 대를 준비한 부부가 밤중에 열심히 페달을 밟아 향한 곳은 미리 사둔 새로운 둥지였다. 한편, 디트로이트에서는 미시시피 소작농 집안의 딸로 태어나 원예가가 된 여자가, 공립학교 교사로 사는 삶에 환멸을 느낀 남편이 도시 농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두 사람이 너무나 사랑하는 도시, 디트로이트에 꺼져가는 생기를 되살리자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 몬타나에서도 또 다른 부부가 수십 년째 유기농법을 알리고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가족이 도덕적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편안한 삶을 버리고 시골로 들어간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째 불고 있는 귀농 열풍으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건 바로 ‘단순한 삶’이다. 모두가 디디고 선 땅, 생명체를 키우는 자연 환경과 너무나 동떨어져 사는 도시의 삶에 질려버린 사람들은 늘 기다리던 엄마 품에 돌아오듯 자연 가까이로 돌아오고 있다. 현대사회를 물들인 어두운 그늘을 걷고 수많은 병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인간의 욕심을 채우느라 환경을 희생시키지 않고 다 같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 나선 것이다. 저자는 자신과 아내를 포함하여 총 네 쌍의 부부가 각기 다른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앞장선 이 같은 변화의 시도를 보여주고, 그 결단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설명한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라는 우리 모두의 고민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평화롭게, 진실되게 사는 것이야말로 유토피아라 할 수 있다. 그저 많이 벌고 마음껏 소비하기 위해 몸도 마음도 텅 비어버린, 혹은 깊이 병이 들어버린 사람들이 선택한 자급자족 생활의 이야기는 그 유토피아가 결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저자가 소개하는 선구자들은 전기 없이 살기도 하고, 가족과 이웃들이 먹을 식량은

모두 직접 키우며 살아간다. 편리함, 물질주의 현대사회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강요하는 타협에서 멀찍이 물러난 이들은 최신 기술보다는 가까운 이웃들과의 협력과 개개인이 지닌 능력, 에너지, 힘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 특권층이던 사람도 있고,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 히피로 살던 사람들 등 살던 곳도, 사회경제적인 배경도 모두 다르지만 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며 모두가 ‘노동의 즐거움’을 깨닫는다. 그리고 보다 건설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경쟁에 밀려서가 아닌 스스로가 택한 다소 부족한 생활이 주는 기쁨과 가치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느끼며 살아간다. 외부인의 눈으로 관망한 이야기가 아닌, 저자 자신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기에 더 생생하게 전해지는 이들의 사연은 더 많이 갖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허무함만 되돌아오는 생활에 지친 사람들의 눈을 뜨이게 할 것이다.

<목차>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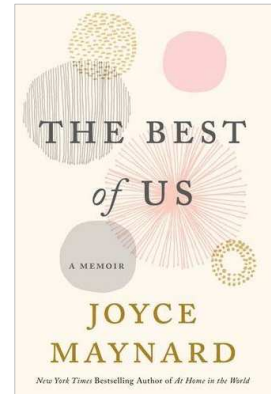
1. 미주리
2. 디트로이트
3. 몬타나

맺음말

<저자 소개>

마크 선딘(Mark Sundeen)은 뉴멕시코 대학교와 서던 뉴햄프셔 대학교에서 글쓰기 석사 과정 강사로 참여하여 소설, 비소설 쓰기 수업을 이끌고 있다. 뉴욕타임스, 월 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에 오른 『North by Northwestern』을 공동 저술하고 『The Man Who Quit Money』 등을 썼다.

제목 : THE BEST OF US
가제 :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
저자 : Joyce Maynard
출판사: Bloomsbury USA
발행일: 2017년 9월 5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 뒤늦게 찾아온 진정한 사랑, 결혼과 남편의 암 진단, 19개월간의 투병, 사망에 이르기까지 뉴욕타임스와 페이스북을 통해 큰 화제와 관심을 받은 가슴 따뜻한 이야기
- * “작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글. 심오하고, 마음 아프고, 감동적인 이 글에는 즐거움과 눈물, 인생이 가득 담겨 있다.” - 소설가 앤 라모트

7월의 어느 여름날, 뉴햄프셔에서 이혼한 지 25년 정도가 지난 두 남녀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여자의 나이는 쉰아홉. 아이들의 아버지와 헤어진 후 내내 다시 사랑에 빠질 날을 기다렸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지나치게 독립적인 자신을 탓하며 이제 두 번 다시 사랑도 결혼도 못하리라 생각했던 그녀에게 운명처럼 짐이 나타난 것이다. 두 사람은 친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팡팡 터지는 폭죽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이야기했다. 6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진짜 사랑을 만난 여자에게 주변 모든 사람들은 부러움과 감탄을 쏟아냈다.

하지만 결혼 1주년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짐은 체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살아남기 위한 고된 노력과 고통스러운 치료는 병든 남편과 그를 지켜보는 아내 두 사람 모두를 집어 삼켰다. 그렇게 19개월이 흐르고, 짐은 곁에 누운 아내를 떠나고 말았다. 아내는 계절이 바뀔 때까지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 남편을 만나 비로소 알게 된 결혼의 의미에 대해 글을 썼다. 애뜻하고 가슴 설레는 러브스토리아자 한 개인이 기적처럼 바뀌어간 과정, 깨달음의 이야기가 담긴 이 회고록은 결혼 소식부터 짐의 사망 소식까지 저자가 「뉴욕타임스」 `현대의 사랑' 칼럼과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이미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호주, 핀란드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에서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나눈 팬들은 저자가 쓴 글을 수백 회 이상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알리면서 저자가 전한 진정한 사랑의 감동을 전했다.

남편을 만나기 전과 후,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이 에세이에서 저자는 한치의 의심 없이 진정한 사랑이라 믿은 남자와 결혼을 하고도 독립적인 삶을 고집했던 자신이 암이라는 거대한 장애물과 만난 후 무엇을 깨달았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처음 남편과 사랑에 빠진 과정도 더 없이 로맨틱하지만 두 사람이 인생을 함께 한다는 것, 그리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의 의미를 알아가면서 로맨스를 뛰어넘는 유대감을 알게 된 저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 그 자체가 삶의 가장 소

중한 선물이라고 주저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에도 소개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아툴 가완디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BEING MORTAL)』, 폴 칼라니티의 『숨결이 바람 될 때』, 올리브 섹스의 『고맙습니다(GRATITUDE)』의 뒤를 이어 죽음이라는 화두를 사랑과 함께 이야기하는 이 에세이는 큰 감동과 함께, 모두가 바라지만 불가능하다고 단념하는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과 희망을 선사한다.

<목차>

프롤로그

1부. 그와 만나기 전

- 소제목 없이 26장까지 구성

2부. 그가 떠난 후

- 소제목 없이 86장까지 구성

맺음말

<저자 소개>

조이스 메이너드(Joyce Maynard)는 소설가 겸 뉴욕타임스 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 번역된 소설 『레이버 데이(LABOR DAY)』와 회고록 『호밀 밭 파수꾼을 떠나며(AT HOME IN THE WORLD)』를 비롯해 『To Die For』, 『Where Love Goes』, 『Domestic Affairs』, 『Baby Talk』등을 썼다. 2009년 발표한 레이버 데이』는 현재까지 전자책 포함 30만 권 가까이 판매되고 2013년 동명의 영화로 제작됐다. 2016년 2월에 발표한 소설 『UNDER THE INFLUENCE』도 현재까지 3만 7천 권 판매되었고 영화로 제작될 예정이다.

제목 : 100 THINGS SUCCESSFUL PEOPLE DO

가제 : 성공을 만드는 100가지 아이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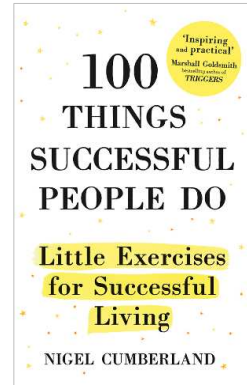
저자 : Nigel Cumberland

출판사: John Murray Learning

발행일: 2016년 8월 11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더 성공적으로 바꾸어줄 수많은 방법을 상기시킨다.” – 베스트셀러 『TRIGGERS』의 저자 마셜 골드스미스**

삶이 마감될 즈음에 ‘내 인생은 성공한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고, 꿈도 다른 만큼 성공의 기준과 정의도 제 각각일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성공을 자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꿈꾸던 일, 바라던 목표를 잘 이루었는가로 종합할 수 있다. 15년 넘게 전 세계를 돌며 무수한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커리어와 인생 상담을 도맡아온 저자는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대체로 나타나는 100가지 특성을 포착하고, 이 책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일과 직업, 대인관계와 자녀양육, 성격과 개성, 돈과 재산, 건강과 마음의 평화, 배우고 익히는 것, 은퇴와 유산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구성하는 전 영역에 걸쳐 성공의 비결을 짚어보고, 각자가 생각하는 그 목표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조용히 앉아서 현 시점에 바라는 꿈과 목표를 하나하나 써보면, 아주 사소한 바람부터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을 요하는 큰 계획까지 생각보다 많은 항목이 떠오른다.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살 빼는 것, 매일 조깅하는 것,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고 그 아이들이 가정을 꾸릴 때까지 자신도 건강하게 사는 것, 대출을 빨리 갚는 것, 외국어를 배우는 것, 지금 앓고 있는 병에서 벗어나는 것 등등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목록의 길이나 내용은 모두 다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목록을 매일 써보면 조금씩 혹은 큰 부분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 중 한 두 가지는 목표를 이루게 마련이고, 상황이 변하면서 목록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 저자는 이를 등산에 비유하며, 우리가 산봉우리에 오르면 미처 있는 줄도 몰랐던 다른 산봉우리들이 눈 앞에 펼쳐지듯 하나의 목표를 이루면 그 이후에 떠올리는 꿈은 자연스레 바뀐다고 설명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100가지 특징대로 총 100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각 장마다 목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 가지 제시하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한다. 책을 읽은 직후부터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활동과 마음가짐, 생활습관, 행동의 변화 등 성공의 기회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소개된다. 제목으로 제시되는 아이디어가 외 중요한지 약 한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설명하고 저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코치로 활약하면서 깨달은 교훈과 이야기가 간간히 포함되어 있어 생생함을 더한다. 이렇게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면, 다음 장에서 이어지는 실천 방법을 자신의 버전으로 바꿔 마음

에 새길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상황에 잘 맞는 것으로 골라 하나씩 실행에 옮길 수 있다.

마음 챙김과 회복력을 키우는 법,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법 등 자기 계발의 기본적인 항목을 모두 다루면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성공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지 숙고하고 꿈이 현실로 바뀔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차근차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서다.

<목차>

머리말

1. 꿈을 따라가라
2. 도움을 청하라
3. 미래를 만들어라
4. 정서적 지식을 쌓아라
5. 반대로 하라
6. 일을 놀이로 바꿔라
7. 매일 하루를 잘 시작하자
8. 과거를 함께한 친구를 소중히 지켜라
9. 쉬어라
10. 인생의 학생이 되라
11. 본능을 믿어라
12. 스트레스를 씻어내라

(이하 생략, 100번까지 구성)

<저자 소개>

나이젤 컴버랜드(Nigel Cumberland)는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국적 금융관리자로 일하다가 홍콩과 중국에서 채용업체를 운영했다. 현재는 리더십 교육 전문가로 홍콩, 부다페스트, 산티아고, 상하이, 두바이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Secrets of Success at Work: 50 Techniques to Excel』 (Hodder & Stoughton, 2014), 『Finding and Hiring Talent In a Week』 (John Murray Learning, 2016), 『Leading Teams In a Week』 (John Murray Learning, 2016) 등이 있다.